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가 5월 19일 종로일대에서 개최한 연등축제는 전세계인들이 어우러진 축제 한마당이었다. 제등행렬 이후 회향한마당에서 외국인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다. 사진=박재운 기자

연등축제 해외서 참가신청 쇄도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0여개국서 7백명 접수

홈페이지 접수 이틀에 매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열리는 연등축제의 참가 신청이 해외서도 가능해졌다.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처음으로 전세계 30여 해외지사를 통해 외국인 연등축제 참가 상품을 기획했기 때문이다. 단체와 개인으로 나눠 3~4월에 걸쳐 신청 모집을 한 결과 특히 개인 접수는 이틀만에 매진될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한국관광공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4월 30일~5월 2일까지 개인 관광객들을 모집한 결과도 예상 밖으로 대 성공이었다. 접수 인원은 모집인원을 훨씬 넘긴 4백명 정도였다. 단체와 개인을 모두 합치면 7백명이 넘는다.

호수영 한국관광공사 관광상품팀 차장은 "연등축제의 공간적 제약으로 참가인원을 줄일 수 밖에 없어 절반이므로 인원을 제한했다"며 "외국인 관광객 참가자가 의외로 많아 2개

조로 나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축제에 참가시켰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봉축위원회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기획한 외국인 연등축제 체험 프로그램은 5월 19일 코스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연등 만들기, 사찰음식 도시락 먹기, 연등 행렬 관람 및 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계종 봉축위원회 박상희 팀장은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넘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특히 제등행렬 참가 전에 직접 등을 만들고 한국 불교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탑골공원 사거리와 수표로에 외국인 관람존을 설치하고, 4개국어로 안내방송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의 외국인 연등축제 체험 상품은 내년에는 신청 접수 국가의 범위와 프로그램 참여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주필 기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일동

조계종 지계정신 회복 나섰다

승가공동체채신위 구성 등 해결책 부심

승려 도박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조계종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무엇보다 무너진 승가 위상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승가 정신의 기본인 '지계(持戒)'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5월 18일 구성된 '승가공동체채신위원회'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와 중앙총무기관은 회의를 열고 '승가공동체채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위원회에는 원로회의의 부의장 밀운 스님이 추대됐으며, 위원에는 원로의원 명선, 월탄, 교육원장 현응, 총무부장 지현, 금산사 주지 원행, 종회의원 지홍, 법안, 주경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또 위원회는 기존 9명의 위원에 수덕사 주지 지은, 은혜사 주지 돈관 스님 등 2명을 추가해

1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종단이 화합해 빠른 시일 내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논의했다"며 "종단 현안과 관련 총무원 기관들이 신뢰를 잃은 부분이 많다.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대 사회에 적응하고 시행할 승가청규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5월 18일 계율 전공 교수 아사리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고 종단 차원의 현대사회 청규 연구를 논의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간담회 참가자들은 이번 도박사태가 계율에 대한 교육 부족과 제도 미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이를 쇠신하기 위한 현대사회와 문화에 맞는 청규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계종 교육원은 현대 사회에 적응하고 시행할 승가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주제로 한 대중공사 형식의 연찬회를 오는 6월 26일에 열기로 했다. 또한 종단 각 교육

현대청규 연구 진행

교육기관 계율 강화

참회 물결도 이어져

기관에서 계율과 불교 윤리 교육을 강화해 계율이 생활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할 것도 결의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참회도 연일 진행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5월 15일부터 100일간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108배 참회정진을 시작했다. 자승 스님은 5월 11일 발표한 참회문을 통해 "지난날의 과오와 안일함에 대해 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중앙총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은 5월 15일부터 100일간 도박사태에 대한 108배 참회정진에 들어갔다.

성하며 종단 전체가 참회하고 자숙하는 모습으로 정진해 가겠다. 총무원장인 저부터 108배 참회 정진을 시작하겠다"고 국민과 불자들에게 종단이 자성·쇄신하는 모습을 지켜봐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조계종 중앙총회(총회의장 보선)는 5월 14일 연석회의를 열고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과 사부대중 앞에 참회를 드린다"는 내용의 참회문을

발표했으며,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원행)도 5월 17일 해인사에서 제21차 회의를 열고 '승가공동체 정신 회복과 종단안정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밖에도 중앙신도회,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등 불교계 단체들도 출재가의 자성을 촉구하는 성명서와 입장문을 잇달아 내놨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index

2556 부처님오신날 특집 60면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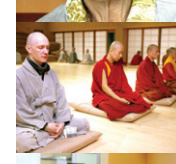


- A 종합
- 2 출가학교 첫 개원한다
- 3 부처님오신날 전국 연등축제
- 4 참회 국토대장정
- 5 불자의 자격-법륜 스님 강연
- 11 봉축 대담-화합
- 16, 17 나의 서원 나의 신행 - 박정자



B 글로벌 한국불교

- 2 쉬운 간화선이 세계화 이끈다
- 3 국경없는 자비실천
- 5 해외 한국 사찰
- 10 세계 속 한국 불교학
- 11 한류 불교문화
- 12 세계화 교육 현장
- 14, 15 연등축제 화보
- 17 특집-보시 트렌드
- 24 명사들의 부처님오신날
- 26 암자의 부처님오신날-서산 천정암



불기 2556
부처님오신날

마음에 평화를
사상에
행복을



종정 진제 법원

원로회의의장 종 산 총무원장 자 승
중앙총회의장 보 선 교육원장 현 응
호 계 원 장 법 등 포교원장 지 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